생수사업 고불법회 봉행

조계사서 '산은 산…' 불전에 공양

수익금은 승려노후복지기금 활용

지난 20일 생수사업 원만성취 고불법회에서 종책특보단장 정념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를 조계사 부처님께 봉정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과 종단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종단차원의 생수사업이 고불식을 갖고 첫발을 내디뎠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프리미엄 생수인 '산은 산이요 물은 감(甘)이로다' 출시를 부처님 전에 고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생수사업 원만성취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하이트진로그룹 석수&퓨리스와 손잡고 생산하는 프리미엄 생수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는 사찰과 종단 용품점을 통해 부처님께 올리는 청수와 식수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보급해 일반인에게도 널리 보급하게 된다.

특히 생수사업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평생동안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노후복지기금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며 중장기적으로 포교와 수행기금으로 활용된다.

지난 9월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해 놓은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는 500ML, 2L, 18.9L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삼보륜이 새겨져 있어 불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생수임을 보증하고 있다

지난 20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불법회는 총무원 재무부 재정국장 각운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헌수봉정, 총무원 재무부장 성월스님의 고불문 봉독, 최광준 석수&퓨리스 대표이사의 인사말,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 단장 정념스님 축사,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의 축원 등으로 진행됐다.

재무부장 성월스님은 고불문 봉독을 통해 "종단에서는 프리미어 생수를 출시해 신도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청수로 사용하고 종단 소속 용품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생수를 판매해 그 수익금을 승가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온 국토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불연 깊은 대지를 불국정토로 만드는데 일대사 인연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고했다.

종책특보 단장 정념스님은 축사를 통해 "훌륭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단순히 조계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 국민 건강을 선도하는 동시에 작은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방편이다"며 "'감'은 국민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원력과 그 정재로 승려노후복지를 돕고자 하는 원력을 담고 있으니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작은 방편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념스님은 이어 "생수사업이 미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인탁 기자

社告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

"단 한 장의 기록도 불교의 역사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과 불교신문은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소중한 기록을 영구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찰과 큰 스님의 유업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구전승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 상 : <문서기록> 고승글씨, 필적, 육필원고, 편지, 일기, 전법게, 안거증, 포상증, 졸업장, 계첩, 전적, 사진엽서, 기타 서류
<사진, 녹음테이프> <큰스님유품 및 박물류>
<봉축관련 사진과 기록> 등

▶ 문 의 : 중앙기록관 (02)2011-1712
E-mail : park5149@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 불교신문사

현장에서 '문화불사' 나서는 교구본사

교구본사가 달라지고 있다. 본지 지방문화팀이 내년도 교구본사의 주요 불사계획 등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본사가 해당 사찰의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선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과거 본사가 전각 증축 등을 통한 건물불사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전통불교·민족문화를 키우고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특히 사찰별 역대 고승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과 스님들의 수행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연구소 건립이나 세미나 개최도 빈번하다. 아울러 사찰 인근 수행환경 보존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정비불사에 들어가는 사찰도 적지 않다.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만공기념관 건립에 들어갔고,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통일대불전에 국제선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민간외교도량 역할을 수행하는 불사를 추진중이고, 제13교구본사 쌍계사는 불교음악의 전통을 계승하는 범패전수관을 지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부산불교문화의 구심점을 세우고 제17교구본사 금산사는 뇌묵스님 역사기념관 건립과 의승병 위령탑 조성 등을 내년도 주요 불사로 꼽고 있다. 석전스님 선양사업에 힘쓰고 있는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10만여평에 달하는 선운사 인근 녹차밭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 역시 마곡사 솔바람명상길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아직도 전화를 걸면 "특별한 계획 없다", "작년과 똑같다"는 말로 일축하는 교구본사도 몇몇 있다. 하지만 상당수 본사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본사가 달라져야 말사도 달라지고, 본말사가 화합하면서 수행·포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민족문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불교계 결연한 의지도 '위대한 결집'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불교문화유산 불교계에 이관하라"

교계 주요 단체 '정부·여당 경책' 결의

국민과 민족문화를 홀대한 국가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중앙종회, 종무원조합 등이 잇따라 정부 여당을 경책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21일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금의 반복적인 불교폄하와 무시에 분노와 함께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26개 소속 종단의 하나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종단협의 성명서에서 "그간 수없이 자행돼 온 보수 극단적 개신교도들의 민족문화유산 훼손과 훼불, 불교비방은 이제 장로 대통령 정부에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불교도들은 국민과 함께 정부 여당에 과연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 여당의 전통문화 인식을 비판했다.

이어 종단협은 "정부 여당은 우리 문화의 근간인 불교를 하나의 특정종교로 치부하는 반민족적, 반문화적 우를 범하지 말고, 불교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의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불교계에 빨리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편법적 개신교 지원사업과 예산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공개할 것과 남북간 긴장완화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민분열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배타적이고 몰지각한 종교인의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가칭 '증오(혐오)범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지난 21일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 고통을 안겨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작금의 형태에 한 마음으로 경책의 죽비를 높이 들 것"이라며 "수천년 이어 온 불교문화를 스스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17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중앙종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박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서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이 풀릴 때까지 그들을 벌하겠다는 종무원의 굳은 결의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돌릴 때까지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는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할 때까지 일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졸속적인 예산철회 △불교 자주권 침해하는 각종 국가법령 즉각 폐지 △정부 여당의 즉각 참회 △4대강사업 전면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에 대해서도 불교 자주권을 수호하고 정부 여당의 천박한 민족문화 의식이 전환될 때까지 불퇴전의 정신으로 정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단체명칭을 변경한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박정규)'은 결의문을 통해 1700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및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종무원조합은 결의문에서 "이번 정부 여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불교에 대한 종교탄압이며 서민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불교계에 대한 공개사과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회담 추진과 더불어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종무원조합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0일 기도를 실시하고, 향후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오른쪽 끝)이 지난 20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도선사, 군법당 건립기금 1억원 기탁

주지 선묵스님 20일 전달

서울 도선사(주지 선묵스님)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 불사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군포교의 중요한 거점이 될 군법당을 빨리 완공해야 하는데 여러 모로 힘을 보태줘 고맙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범어사 방화범 검거 촉구

대한불청, 기자회견 개최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15일 발생한 부산 범어사 방화사건의 범인 검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화재현장인 부산 범어사 천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재훈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은 "우리는 금번 범어사 천왕문 방화사건을 문화재와 민족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간주한다"며 "문화재와 민족문화유산을 파괴하는 방화범에 대해선 특별히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대한불교청년회는 부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최병문 부산지사장 ch4717@ibulgyo.com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편지

이명박 대통령님!

한해의 회한으로 쓸쓸한 연말이 긴장된 남북관계와 국회의 예산 졸속처리, 정부의 서민과 전통문화를 외면한 행보로 인해 더욱 힘들고 쓸쓸합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질서가 확립된 현대사회이며, OECD가입 국가로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정부여당에 의한 종교편향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외면당하며,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수치스런 일입니다.

국가지도자가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에 편향하고 정치권과 공직자 사회가 이를 추종하여서, 종국에는 사회가 획일화 되고 전통문화가 말살된다면 국가의 존립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상과 정신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야 하며,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구성원 사이에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문화적으로 다양성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겨레가 일구어 온 전통과 문화를 배척한다면 건강한 국가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경제부강정책과 더불어 한 때 그들이 말살하려 했던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얼마 전 폐막한 광저우아시안게임의 개막식을 통해 세계 각국은 그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힘의 근원을 어디에서 건져 올리는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바로 '전통', 그것이었습니다. 선진강대국으로 가는 힘의 근원은 인문학과 사상, 전통과 문화입니다. 실용은 이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상과 문화의 전쟁에서 패배하고서는 그 어느 국가와의 군사·경제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문화재사찰의 방재시스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국위선양에 톡톡히 한몫을 해온 템플스테이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불교와 민족문화가 천대받음에 중국과 일본은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민족의 전통과 불교문화를 배척한다면 동일 문화권인 한중일 간 경쟁에서 뒤쳐짐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왜곡된 한반도의 역사관에 힘을 실어주어서 한반도지배의 굴절된 역사관을 고착시킴에 일조합니다. 종국에는 세계 각국과의 경쟁력도 상실할 것입니다.

중국이 불교와 문화정책에 인력과 예산의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를 화두로 삼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권고지침은 문화유산의 역사적·건축적 지역과 그 환경의 지정(identification), 보호(protection), 보존(conservation), 복원(restoration), 보수(renovation), 유지(maintenance), 활성화(revitalization)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점(点) 단위의 보호가 아니라 면(面)단위의 보호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문화유산의 '활성화'에 주목하는데, 문화유산의 '활성화'란 국민으로 하여금 역사, 문화, 환경을 체험·계승하여 창의적 발달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은 그 문화를 근간으로 합니다. 석굴암, 팔만대장경, 석가탑과 다보탑 등 유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은 시공을 초월한 국가의 자산이며, 문화외교의 사절이자 세계적 자랑거리입니다.

국보의 56%, 보물의 66%가 불교문화재이며, 전국사찰에 1만2천여점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G20정상회의 개최기간 중 열린 '고려불화전'에서 보듯이 세계가 우리의 불교문화재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민족의 문화유산을 시빗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지도계층이 자신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의 것이라고 하여, 또 불교문화 보호에 적극적이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굴절되고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전통사찰의 가치를 폄훼하고 문화재보호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국가적으로나 인류문화사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발전한 원동력의 이면엔 불교문화유산 등 세계 최고의 문화를 창달한 선조들의 위업과 숨결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이념 간, 계층 간 갈등에 이어 종교 간 갈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소중한 문화가 파괴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화와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인 인식이 한국역사의 발전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2011년도는 우리사회에서 종교나 계층 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19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법 응 합장